

이것은
국어가
아니다,
예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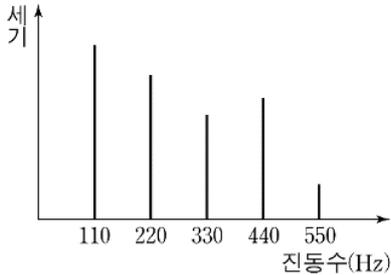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음악적 아름다움

[01 -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악기가 $\textcircled{\text{내}}$ 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

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2/1인 옥타브, 3/2인 완전5도, 5/4인 장3도, 6/5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textcircled{\text{한}}$ 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textcircled{\text{내}}$ 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썸머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썸머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썸머림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성 음악: 으뜸음 ‘도’가 다른 모든 음계 음들을 지배하는 음악으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양 음악이 이에 해당한다.

[A]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02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③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④ 셈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⑤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03

음악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 중, ㉠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때 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04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
- ③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 ④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⑤ <그림>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05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음 P, Q, R, 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음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Hz)	440	550	660	880

-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0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윗글의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되라.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05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음악적 아름다움

Comment

주제를 설명하는 구간인 1문단, 5문단이 쉽고, 오히려 2~4문단의 Build - up 구간이 처리하기 훨씬 까다로웠을 것이다. 특히나 2문단의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흐름 잡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견뎌야 한다. 항상 강조하듯, 평가원은 항상 일관된 서술 구조를 보여주며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큰 틀을 잡고 정보를 붙여 나가야 한다.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을 잊지 말자. 결국 수능은 상대 평가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남들보다 잘하면 된다. 완벽한 독해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했을지 고민해보자.

1문단

1)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 당연한 얘기.

2)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그렇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위해 작곡가들은 노력한다.

3)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 [㉠]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질문이 등장했다. 1문단부터 질문이 2가지나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문 전체를 장악하는 중심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질문을 이해해보자.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음... 당연히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들으면 아름답지만, 악기가 각자의 연주만 한다면,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잘 모르겠다. 일단 ㉠의 답, ㉠이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을 잘 기억하다 ㉡ 관련 내용이 등장하면 반응하자. 그렇지만 ㉡를 아예 놓쳐서는 안 된다. 음악적 아름다움 관련 내용에서도 반응할 준비를 하자.

ReWind

[㉠]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2문단

- 1)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 예상대로 '듣기 좋은' 소리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다. 피아노 단독 연주는 있어도 심벌즈 단독 연주는 없으니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
- 2)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병렬 - 비교 흐름에 대비하자. 고른음에는 그냥 밑줄, 시끄러운음에는 물결 밑줄을 하자.
- 3)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 고른음: 주기성 O
시끄러운음: 주기성 X
- 4)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 그렇다. 앞서 예시를 든 심벌즈 같은 경우, 음을 구분하지 않고 보통 박자에 맞춰 연주한다.
- 5)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 생각하자 생각. 그렇다면 시끄러운음에서는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 주기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 6)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 진동수: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
- 7)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 비례 관계니 메모.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은 즉, 같은 파형이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치환해서 메모하는 것도 좋다.
∴ 같은 파형 반복 수 ∝ 음높이(음고)
- 8)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 단순음이라는 친구가 새롭게 등장한다. 일단 개념이니 체크하고...
단순음: 고른음 중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
- 9)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 사인파 진폭 ∝ 소리의 세기
즉, 사인파의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인데...
- 10)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부분의 소리는 파형이 사인파 하나가 아니란다.
- 11)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 역시 병렬 - 비교 흐름이다.
단순음: 사인파
복합음: 사인파 여러 개 중첩
부분음: 복합음을 구성 단순음
- 12)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 기본음의 진동수 = 복합음의 진동수 인식

정보가 미친듯이 쏟아지는 Build - up 구간이었다. 수업시간에도 항상 설명하듯 우리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챙겨갈 정보와 정리할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지문은 1문단에서 질문 2개를 제시했고, 이에 대한 답이 등장해야 한다. 따라서 ㉠의 내용인 '듣기 좋

은' 소리 관련 내용은 뒤에 나올 대답과 연관될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듣기 좋은 소리인 고른음을 기준으로 정보를 잘 정리해야 했으며,

- (1) 고른음: 피아노, 주기성 O, 동일한 파형 반복 O
 - (1)-① : 단순음: 사인파
 - (1)-② : 복합음: 사인파 여러 개 중첩
- (2) 시끄러운음: 심벌즈, 주기성 X, 동일한 파형 반복 X

다음의 정보 분류를 머리 속으로 정리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메모를 할 필요가 있다. 범주에 입각한 정보의 병치는 항상 강조하는 병렬 - 비교 흐름의 핵심이고, 이는 분명한 출제 POINT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막상 정리하면 그리 정보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결국 평가원은 병렬 - 비교 흐름에서는 공통 서술 범주에 맞춰 내용을 제시하므로 (1) - (2)에는 주기성, 동일한 파형 반복 여부를 범주로, ① - ②는 사인파 중첩 여부를 범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정보를 조직화한다면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ReWind

- (1) 고른음: 피아노, 주기성 O, 동일한 파형 반복 O
 - (1)-① : 단순음: 사인파
 - (1)-② : 복합음: 사인파 여러 개 중첩
- (2) 시끄러운음: 심벌즈, 주기성 X, 동일한 파형 반복 X

3문단

1)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 음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영향

앞서 우리가 2문단에서 파악한 정보인 부분음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이었음을 파악하자.

2)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 피아노 뿐만 아니라 현악기와 관악기는 고른음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라는 의미는 주기성을 갖거나 동일한 파형이 반복된다는 의미와 연관이 되어 보이고...

3)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 타악기는 주기성도 없고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지 않아,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는 것 같지 않다. 대표적인 타악기의 예시? 2문단에 등장한 심벌즈.

따라서 3문단은 2문단의 병렬 - 비교 흐름에 그대로 종속되어 정보만 추가되고 있다.

(1) 고른음: 현/관악기, 주기성 O, 동일한 파형 반복 O,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 O

(2) 시끄러운음: 타악기, 주기성 X, 동일한 파형 반복 X,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 X

4)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을 보자. 시각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해해야 한다.

5)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 즉, 고른음은 앞서 등장한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는 것이 스펙트럼의 일정한 간격의 세로 막대들로 나타난다.

6) 반면에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 반면, 시끄러운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으므로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 = 막대 사이 간격의 일정함'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나 까다로웠지만 2문단에서 정보를 잘 정리해봤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용을 붙이면 되므로.

또한 그림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단 그래프 같은 경우 일정한 간격의 세로 막대들이 나타나므로 <그림>은 고른음의 스펙트럼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앞서 2-2)에서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110hz가 기본음, 220, 330, 440, 550hz가 부분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eWind

(1) 고른음: 현/관악기, 주기성 O, 동일한 파형 반복 O,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 O

(2) 시끄러운음: 타악기, 주기성 X, 동일한 파형 반복 X,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 X

4문단

1)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 협화도: 음의 어울림

2)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 음정 =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 = (높은 음고의 진동수)/(낮은 음고의 진동수)
수식은 당연히 메모.

3)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 그렇다. 즉, 도와 미 사이가 도와 솔 사이보다 좁은 것은 당연히 알지? 도레미파솔라시니까.

4)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 즉, 장3도 음정은 5/4고, 완전5도 음정은 3/2이므로, 완전5도 음정이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더 작으므로 음이 더 어울린다.

∴ 분자와 분모의 수 \propto 1/협화도

5) 가령, 음정이 2/1인 옥타브, 3/2인 완전5도, 5/4인 장3도, 6/5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 그렇다. 점점 분자와 분모의 수가 커지므로 협화도는 작아진다.

6)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 1~6으로만 표현이 되면 어울리는 음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서 등장한 모든 음들은 협화 음정이라 볼 수 있다.

역시나 4문단에서 Build - up이 이어진다. 서술하는 내용은 달라졌지만, 수식과 비례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ReWind

음정 =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 = (높은 음고의 진동수)/(낮은 음고의 진동수)

분자와 분모의 수 \propto 1/협화도

5문단

1)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 반응했는가? 왜냐고? 1문단에 제시된 질문이 뭐였는지 확인해봐라. 이게 답이다. 결국 1문단에 제시된 지문 전체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은? ㉠의 답인 ㉡가 등장할 차례다. 음악적 아름다움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파악해보자.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 뻔했다. 심벌즈만 단독으로 연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듣기 싫겠지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녹아드는 심벌즈 소리는 듣기 좋기 때문이다.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면, 심벌즈 같은 악기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 아니요,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음.

2)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렇다. 다양한 음의 조직적 연결은 앞선 Build-up 구간을 의미하겠지.

3)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 [㉡] 음악의 아름다움 = 형식 그 자체

4)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 X] 음악이 환기하는 감정, 정서

즉, 한슬리크가 주장하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형식 그 자체로 구현된다. 따라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떠올리는 감정이나 정서 같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음악을 구성하는 소리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음악의 가치가 된다.

답이 아닌 소재는 선지 한두 개 정도로 출제된다. 챙겨가자.

ReWind

[㉠] 아니요,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음.

[㉡] 음악의 아름다움 = 형식 그 자체

6문단

1)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 그럼 각각의 설명이 등장할 것이다. 하나하나 파악하자.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이 만들어 낸 형식 그 자체가 음악적 아름다움을 구현할테니.

2)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 ① 리듬: 음고 X,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

3)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 ② 가락: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 →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

4)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 ③ 화성: 화음과 화음이 연결된 흐름

5)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 ④ 셈여림: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

6)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 ⑤ 음색: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

나열은 어떻게? 일단 넘버링 해놓고 돌아오자. 위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선지에 출제되면 돌아오는 편이 효율적이다. 어차피 나열 구간은 깊이 있는 독해보다는 사실 관계 수준의 내용 일치만을 물어 본다.

ReWind

음악적 요소 ①~⑤

7문단

1)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 ㉔ 가락: 작곡가의 아이디어 → 주제로 구현

가락은 그래도 챙겨가야 하겠다.

2)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렇다. 7문단에서는 ㉔2를 부연해주고 있다.

ReWind

㉔ 가락: 작곡가의 아이디어 → 주제로 구현

11. ④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 음악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2~4문단), 이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 탐구(5~7문단)하였다.

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 소리에 대한 감각이나 음악 감상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미적 본성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고른음, 시끄러운음, 단순음, 복합음, 부분음 등 소리를 구분하고 있지만 음악의 형식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 듣기 좋은 소리인 고른음과 그렇지 않은 소리인 시끄러운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12. ①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리듬은 음고가 없으므로 음높이를 가질 수 없다.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③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음악에서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④ 셈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다.

⑤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13. ④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아름다움은 음악의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의미하며, 한슬리크는 음악의 가치를 음악이 환기하는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한슬리크의 주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다.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기쁨, 슬픔은 음악이 환기하는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다.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상쾌한 아침의 정경은 음악이 환기하는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다.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내면의 불안감은 음악이 환기하는 특정한 정서다.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서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 화들짝 놀라는 것은 음악이 환기하는 특정한 정서다.

14. ③

③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 <그림>은 일정한 간격의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소리 스펙트럼을 통해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는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분음 중 진동수가 제일 작은 110Hz가 기본음이 된다. 따라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110Hz의 세기가 가장 크므로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①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 심벌즈는 타악기이므로 시끄러운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으므로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할 수 없다.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

→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하는데,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한다. 우리의 귀는 복합음 속 부분음들 중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따라서 복합음의 진동수는 110Hz이다.

④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 소리 스펙트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 변화가 아닌 복합음을 구성하는 부분음들의 세기 변화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⑤ <그림>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음색이 결정되므로 220Hz의 부분음이 사라진다면 음색은 변할 것이다.

15. ②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 '음정 =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 = (높은 음고의 진동수)/(낮은 음고의 진동수)'이므로 P와 Q 사이의 음정은 $550/440 = 5/4$, Q와 R 사이의 음정은 $660/550 = 6/5$ 임을 확인할 수 있다.

[A]에서 장3도 음정은 $5/4$ 이고, 완전5도 음정은 $3/2$ 인데, 장3도가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라고 서술하였으므로, 값이 작을수록 좁은 음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5/4$ 가 더 큰 값이므로 P와 Q 사이의 음정이 더 넓은 음정이다.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 P와 Q 사이의 음정은 $550/440 = 5/4$ 이므로 장3도 음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 P와 R 사이의 음정은 $660/440 = 3/2$. 따라서 분자, 분모가 6 이하의 숫자로 표현이 되므로 협화음정이다.

④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 바이올린은 현악기이므로,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P는 440Hz, 880Hz, 1320Hz, 1760Hz ... 를 부분음으로 가진다. S는 880Hz, 1760Hz ... 를 부분음으로 가지므로, P와 S의 부분음 중에서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존재한다.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 P와 S 사이의 음정은 $880/440 = 2/1$ 이고, Q와 R 사이의 음정은 $660/550 = 6/5$ 이다. 따라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할 경우,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 따라서 P와 S 사이의 음정이 협화도가 더 크다.

16. ④

* 문법 문제이므로, 화법과 작문 선택지는 틀려도 괜찮다.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 내다: 자립적으로 서술어 가능 → 본용언

㉡ 내다: 혼자 쓰이지 않고, '만들어'의 의미를 더해줌 → 보조 용언

'구하다'와 '오다' 모두 본래의 의미로 쓰이며 자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버리다'는 '하다'라는 본용언 뒤에 붙어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주다'는 '듣다'라는 본용언 뒤에 붙어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되라.

→ '두다'는 '쉬다'라는 본용언 뒤에 붙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 '보다'는 '계산하다'라는 본용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Not all masterpieces are placed in museums.

